# 발보리심 없인 부처 될 수 없다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㉙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

〈원문〉 그때 관세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절을 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기억하니 옛적 수없는 갠지스강 모래알 수만큼의 많은 겁 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관세음부처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부처님에게서 보리심을 발하였으니 그 부처님이 저를 가르쳐서 문(聞)·사(思)·수(修)로부터 삼마지에 들라 하셨나이다. 처음에 듣는 가운데서 듣는 법류(法流)에 들어가 들리는 소리를 잊었습니다. 듣는 성품과 들어간 소리가 이미 고요해짐에 움직이거나 고요한 두 가지 상태가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점점 증진하여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이 다하여지고 들음이 다했다는 것도 남아 있지 않아서 깨닫고 깨달을 바가 공해졌으며, 공해진 깨달음이 지극히 원만하여 공하고 공해지는 대상이 없어졌으며, 생기고 소멸함이 이미 없어져 적멸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홀연히 세간과 출세간을 뛰어넘어 시방이 뚜렷이 밝아져 두 가지 뛰어난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위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본래의 미묘한 깨달음의 마음과 합쳐져 시방 여래로 더불어 자비의 힘이 같아진 것이요, 둘은 아래로 시방의 일체 육도 중생과 합해져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부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같아졌습니다."

〈강해〉 대승 경전에 등장하는 불보살은 과거 인행시(因行時)에 특정 부처님을 만난 것을 계기로 보리심을 발했다고 서술되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다. 이근원통을 이룬 관세음보살도 과거 무수겁 전에 관세음 부처님으로부터 보리심을 발했다고 한다. 깨달아서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이 보리심이다.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문(聞)·사(思)·수(修)를 삼혜(三慧)라 하는데 지혜를 터득하는 세 가지 단계라 할 수 있다.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수행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관세음보살이 '처음 듣는 가운데서 법류(法流)에 들어가 들리는 소리를 잊었다' 는 것은 듣는 성품에 들어가서 성진(聲塵)인 소리를 잊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듣는 성품을 들어 해탈을 얻었다는 것이다. 흔히 이 대목의 내용을 요약하여 반문문성(反聞聞性)이라 한다. 객진(客塵)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듣는가 듣는 성품을 듣는다는 말이다. 이는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어 고요해져 객관을 의식하는 망념이 없어졌음을 뜻한다. 이른바 삼마지에 든 것이다.

'움직이고 고요한 두 가지 상태가 조금도 생기지 않았다' 는 것은 소리가 들리는 것은 물론 들리지 않는 고요한 것도 없어졌다는 것이다. '듣는 것과 들려지는 것이 다하고 들음이 다했다는 것도 남아 있지 않다' 는 것은 아공(我空), 법공(法空), 구공(俱空)의 뜻이다. 아공(我空)이 되면 이근(耳根)도 없어지고 법공(法空)이 되면 성진(聲塵)도 없어져 여래장묘진여성만 남게 되는데 이 여래장묘진여성 마저도 공해져 버린다는 뜻이다. 이를 다음 말에 깨닫고(覺) 깨달을 바(所覺)가 공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들음이 다한 것은 소각이 되고 다한 줄 아는 것은 능각이 되는데 능소(能所)가 동시에 끊어졌다는 말이다. 공해진 각(空覺)이 지극히 원만하여 공(空)하고 공해지는 대상(所空)이 없어졌다는 것은 5권에서 설해진 육해일망(六解一亡)의 경지이다. 이런 경지에서 생멸이 없어지고 적멸이 나타나 세간과 출세간을 뛰어넘었다 하였다. 열반경 사구게에서 말한 "생멸이 없어지고 적멸이 즐거움이 되었다(生滅滅已 寂滅爲樂)"는 말이다. 여기서의 적멸은 일심의 근원으로 본래의 적멸이다. 이를 법화경 사구게에서는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고요한 모습 그대로다(諸法從本來 常自寂滅相)" 하였다.

이근원통(耳根圓通)을 얻은 관세음보살은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는 시방 여래와 자비의 힘이 같아진 것이요. 또 하나는 육도의 중생과 더불어 부처님을 비앙(悲仰)이 같아진 것이다. 이는 위로 향하고 아래로 향하는 자비가 완전해졌다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 본성으로 비추고 각성으로 제도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㉙ 보시바라밀

원행지와 부동지에서는 암마라식이 쓰이고 선혜지에는 원통식이 활용된다. 법운지에서는 생멸문 전체를 대상으로 보시를 행한다. 원통식이 활용된다. 선혜지는 9지 보살이다. 9지 보살은 생멸문 전체를 덮지 못한다. 그래서 반연(攀緣)이 없는 중생들은 제도하지 못한다. 반연은 육입(六入), 촉(觸), 수(受), 애(愛), 취(取), 유(有), 생(生), 사(死)의 과정에서 맺어지는 인연을 말한다. 육입 이전에 진행되는 명색(名色), 식(識), 행(行), 무명(無明)의 과정은 반연이 아니다. 반연이 없는 중생을 제도하려면 역무명색진(亦無名色盡), 역무식진(亦無識盡), 역무행진(亦無行盡), 역무무명진(亦無無明盡)을 행해야 한다. 이 과정이 법운지에서 이루어진다. 역무노사진(亦無老死盡) 내지 역무육입진(亦無六入盡)까지는 아라한도와 선혜지까지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환희지에서 이루어지는 보시 바라밀은 열반상에서 벗어나서 생멸심으로부터 전이되는 그리움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성중생서원도(自性衆生誓願度)의 시작이다. 자성보시라 한다. 해탈지견이 쓰여진다. 이구지에서 행해지는 보시 바라밀은 생멸심과 진여심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일치된 생멸심을 진여심과 동등하게 바라보고 제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때에 행해지는 보시바라밀이다. 해탈지견이 쓰여진다. 초지 보살과 2지 보살은 아기보살이다. 해탈지견은 9식이지만 아직까지 식근(識根)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9식의 식근은 암마라식을 통해 갖추어진다. 암마라식은 자기 생멸심을 제도하면서 갖추어진다. 때문에 초지와 2지에서 자성중생서원도를 일으키지 않으면 암마라식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열반락을 누릴지언정 안, 이, 비, 설, 신, 의가 없는 일면불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떨어트려 놓은 생멸심을 제도한 만큼 암마라식이 갖추어지고 암마라식이 갖추어진 만큼 육근이 생긴다. 5지 난승지를 넘어서서 6지 현전지에 들어가야 비로소 암마라식이 원만해진다.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까지는 암마라식이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는다. 3지 발광지에서 행해지는 보시바라밀은 진여신의 밝은성품으로 생멸신을 감싸는 것이다. 생멸신이 영혼으로 있으면 영혼을 감싸고, 육체를 갖고 있으면 육체를 감싼다. 이 상태가 되면 생멸신의 상태가 그대로 진여심에 전달된다. 심과 식, 몸의 상태가 포괄적으로 일치된다. 본성으로 비춰주고 각성으로 제도한다. 해탈지견이 쓰여진다. 4지 염혜지에서는 진여심의 무념처와 생멸심의 식업을 일치시킨다. 그 상태에서 생멸심의 식업을 제도하면서 보시바라밀을 행한다. 염혜지에 들어가면 생멸심의 식업이 무념처에 덧씌워진다. 그렇게 되면 진여보살이 생멸식을 갖게 된다. 그때의 생멸식을 무념처와 간극으로 제도해서 원만보신과 법신청정을 이룬다. 이것이 염해지에서 이루어지는 보시바라밀이다. 5지 난승지에서는 생멸심의 심업을 무심처에 복사하고 생멸심의 식업을 무념처에 복사한다. 이렇게 되면 보살의 진여식 안에 생멸식이 갖추어진다. 이 상태에서는 심과 식의 정보가 무작위로 교류한다. 그러면서 번뇌를 만들어낸다. 이때의 번뇌는 쉽게 다스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난승지라 부른다. 보살이 이때의 번뇌를 다스리지 못하면 다시 반야해탈도의 과정으로 퇴전할 수도 있다. 난승지에서의 보시바라밀은 일치된 심과 식의 번뇌를 다스리는 것이다. 간극에 각성을 집중하고 무념처와 무심처를 덮고 있는 생멸심을 비춰본다. 그러면서 법신청정행과 원만보신행, 천백억화신행을 함께 행한다. 제도된 생멸심이 암마라식으로 전환되면서 식근이 생겨난다. 그렇게 되면 번뇌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난승지의 한 과정 한 과정이 모두 다 보시행이다. 일치되었던 생멸심이 모두 제도되면 다시 간극과 무념, 무심이 뚜렷하게 현전한다. 현전지라 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㉙ 불생불멸

# 성찰, 움직이는 것 아닌 지켜보는 것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말이 있다. 선뜻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유는 시작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문제의 답에 빠지게 되면 헤어날 수가 없다.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 일으키는 생각은 사유의 폭을 넓히지 못한다. 사유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묶여 있는 관념을 어떻게 풀어 놓느냐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닭과 달걀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가지게 되면 어떤 논리를 전개하더라도 나중에 자신의 궤변에 자신이 도로 갇히게 된다. 모양과 언어가 사용된다고, 그것이 존재한다고 단정하면 결코 안 된다. 존재성을 밝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는 존재성이라는 범위를 두리뭉실하게 사용한다.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우리의 신체는 많은 변화를 하지만 그 모든 변화된 모습과 상관없이 나로 인식하여 알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을 '나' 라고 정의하려고 하면 선뜻 '이것' 이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 순환 속에 자신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이다.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므로 알려고만 하지 않으면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진리의 이치다. 진리는 부분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다. '나' 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순환 속에 나를 있다고도 하지 않고 나를 없다고도 하지 않으며, 안다고도 하지 않고 모른다고도 하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된다.

"무상의 적정을 보아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빼어난 경계를 보았다고 할 수 있네. 빼어난 경계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네. 만약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생멸의 인(因)이 있는 것이니 빼어나다고 할 수 없네. 소위 무상이란 망상이 불생하고 불기하며 불멸하는 것으로 바로 내가 말하는 열반이네."

세상의 사물은 시작과 끝이 없는 순환의 고리에 묶여 있다. 어느 한 부분을 떼어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하나의 문제만 독립적으로 생겨난 경우는 없다. 꼭 하나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 하나의 문제는 모든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순환의 고리 가운데에서 찾아다니면서 분별하고 시비할 필요가 없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분을 전체로 착각하는 경우이든지, 전체에서 하나가 빠진 전체일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스스로의 일과는 무관한 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부적인 대상에 대한 갈구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나' 라고 하는 자에 대한 바른 성찰이 필요하다. 이때 성찰의 의미를 마음대로 해석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인 생각으로 더듬더듬 두드리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더듬더듬하는 자에 대한 의심이 필요한 것이다. 의심하기 위해서는 방편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성찰하는 자와 성찰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한 분리가 필요하다. 성찰하는 자는 움직임이 없는 자이고, 성찰의 대상이 된 자는 움직임이 있는 자라고 분명하게 알고 시작하여야 한다. 움직임이 없는 자는 움직임이 있는 자를 그냥 그대로 볼 뿐이지 어떠한 판단이 없다. 그러나 움직이는 자는 옳고 그름을 시비하고,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별할 것이다. 이때 자신을 성찰하는 자라고 믿고 성찰의 대상이 된 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모든 선택이 즉흥적이라는 것을 안다. 옳음도 없고 틀림도 없고,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숫자를 그대로 말하는 정도일 뿐, 자신의 결정에 특별한 이유도 없다. 알고 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까지 '나' 라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새삼 보게 된다. 이때부터 성찰한다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지켜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수행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움직이고 변화하는 수행에서 움직임이 필요 없고, 변화하는 것이 필요 없고, 아는 것이 필요 없이, 오직 성찰하는 자로서 집중하는 모습에 즐거움이 생긴다. 안팎의 다툼은 사라지고, 무엇을 찾는 마음이 버려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에 물들지 않고, 의심하여야 할 것과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모양과 이름에 묶여 있는 오온이 내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서, 오고감이 없는 그것이 분명하였으니, 다시는 생로병사로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없어진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